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¹⁾

이상직 _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논문요약

근대적 라이프코스라고 하면 우리는 교육-노동-결혼-출산-은퇴라는 구획된 단계를 적절한 때에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한 기대를 가족-학교-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못한, 또는 이탈한 이들의 라이프코스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것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글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검토해 이 질문에 답한다. 이들의 생애는,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전형으로, 비구획된 생애 구조와 무의미성이라는 시간 체험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라이프코스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설'이다. 수용자들은 시설에서는 물론이고 퇴소 후 시설 밖에서도 죽지도 살지도 못한 가사(假死)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시각

- 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이 공동 주관한 학술대회 '배제에서 포용으로: 형제복지원의 사회사와 소수자 과거청산의 과제'(2018.11.19.)에서 이 글의 초고를 발표했다. 구술해 주신 분들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오랜 기간 함께 토론해 준 형제복지원연구팀 동료들과 구술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신 주윤정 박사님, 학술대회에서 토론해 주신 이주영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도 감사드린다.

DOI: <http://dx.doi.org/10.31008/MV.40.2>

이 갖는 함의는 두 가지다. 첫째, 이들의 생애 구조는 보통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평가해온 근대적 요소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생애 또한 근대적 라이프코스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독재국가의 전근대적인 폭력으로만 규정하면 이 시설과 그에 결박된 수용자들의 삶이 근대화 과정에 내재된 ‘라이프코스의 이중적 제도화’의 결과였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최근 전개되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운동은 수용 경험자들에게는 무의미했던 지난 삶의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주요어:** 근대적 라이프코스, 총체적 기관, 시간 의식, 생애사, 형제복지원

1. 들어가며: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

사회복지시설에서 살아왔던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한종선 외 2012, 129).

잃어버린 13년,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내 나이가 오십이 넘었어도 나는 그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배운 눈치를 무기 삼아 살아왔지만 억울하고 분해요. 형제원 피해자들의 문제는 다만 그 몇 년의 고통이 아니예요. 우리는 밖에 나와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지 못했어요(박경보 구술: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37).

형제복지원과 그곳에 수용되었던 이들은 보통 각각 전근대적인 폭력과 그 피해자로 여겨진다.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은 비문명적 규범, 제

도, 실천의 대표 사례이고, ‘피해자’의 생애는 예외적·일탈적 삶의 전형이다. 이런 시각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드러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²⁾ 이 글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사를 검토해 이러한 통념에서 부각되지 못한 이들 생애의 역사적, 현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들의 생애는 근대적 생애였으며, 형제복지원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대적인 제도적 장치였다. 이들의 생애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두 가지 이념형 중 하나를 드러낸다.

먼저, 우리가 익히 떠올릴만한 사회적 시간표에 따라 곧게 나아가는 삶이 있다. 유년기-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로 구획되는 삶이다. 각 국면은 여러 사회 제도로 구획된다. 유년기는 가정에서 보내고,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보낸다. 성인기는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새롭게 꾸린 가정에서 재생산에 전념하는 시기다. 생산과 재생산 역할을 마친 노년기에는 복지 제도의 틀에서 노후를 보낸다(Kohli 1986). ‘정상인’의 라이프코스에서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다.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다. 각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은 발전이다. 각 단계가

2) 이러한 시각은 언론이나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나온 논의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학계로 보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보통은 1950년대 이후 부랑인 정책의 성격을 밝히려는 연구에서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는 수준이다. 이들 연구에서 부랑인 정책은, 도입 맥락을 강한 국가의 동원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든 국가 권력의 허약함에 따른 것으로 보든, 그리고 그 결과를 성공으로 보든 실패로 보든, 국가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부과한 어떤 것이다(정수남 2018; 추지현 2018). 한 마디로 국가 폭력이다(김아람 2011; 김원 2011; 하금철 2017).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연구의 맥락에서 국가 폭력은 종종 전근대적인 어떤 것으로, 부랑인은 그것의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다음 단계를 전제하는 한,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삶은 단계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아간다.

근대가족 연구는 이러한 구조가 근대 사회로 와서 형성되었다고 보고한다.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 보편혼의 확대와 표준화된 출산 등의 인구학적 변화(Anderson 1985; 오치아이 2004), 산업화에 따른 집과 일터의 분리,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증가, 생산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교육제도 및 은퇴제도의 형성과 같은 정치경제학적 변화(마일즈 1992), 연령에 따라 촘촘히 구획된 규율기관의 등장과 그에 따른 연령 규범의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Buchmann 1989; 아리एस 2003; 김혜경 2006; 전희경 2013)가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형성한 힘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분화는 물질적·규범적 사회제도의 분화와 조응한다(Smelser and Halpern 1978).

그런데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말할 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형태의 라이프코스가 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생애가 드러내는, ‘시설’로 통칭되는 집단수용소에서 삶의 주요 국면을 보낸 이들의 라이프코스다. 수용자의 생애는 ‘일반적’ 라이프코스 구조와 다르다. 생물학적 나이는 먹지만 그에 수반된 사회적 역할의 연쇄는 형성되지 않는다. 삶의 단계를 구획하는 경계가 흐리고, 삶의 영역을 구획하는 경계도 흐리다. 단계적 시간표는 사라지고, 현재만 남는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이들 과 같은 사람들의 생애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전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러한 삶을 관리(뺏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설이다. 수용소는 다른

제도 영역(가족, 학교, 직장 등)과는 달리 특정 생애 발달 단계(유년기, 성인기, 노년기)에서 경험하는 곳이 아니다. 시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이 동일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기관”(고프먼 2018, 16)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은 어떤 단계의 목표 단계도, 준비 단계도 아니다. 시설 대부분은 명시적으로는 수용자를 시설에서 나가게 하는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사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한 이들을 기약 없이 모아둔다(고프먼 2018; 이상직 2012).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시간은 무엇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전의 어떤 시간이 결과한 시간도 아니다. 이 곳에서 시간은 멈춘다.

그러나 정상과 이탈을 각각의 속성으로가 아닌 서로의 관계로 규정하는 관계론적 시각(뒤르켐 2001; Becker 1991; 고프먼 2009; 2018)으로 보면 이들의 삶도 또 하나의 전형적인 근대적 라이프코스다. 첫째, 이러한 삶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상이 있고 사회가 그 상에 따라 조직되는 한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삶이 근대적 시간표에 따라 촘촘하게 짜여 질수록 그러한 시간표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의 생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촘촘하게 조직된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제시되는 이들 또한 정상성을 받아들이는 아들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이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시설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기대된다. 그 수단이 문제를 더 만들어내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 글은 ‘어떻게 1980년대에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야만적인 일이 있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각도로 접근한

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정상성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었던 물질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시기가 1980년대였기 때문이다(हतोरी 2006). 정상성 상이 형성되고 그 상에 부합하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마련되자 상에 맞지 않는 이들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났다. 이 글은 그 과정을 ‘라이프코스의 이중적 제도화’로 규정한다. 이것은 가족, 학교, 공장(노동시장) 제도의 틀에 따라 사회구성원 상당수의 라이프코스가 표준화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탈락한 이들의 라이프코스가 시설이라는 또 다른 제도적 틀에 따라 표준화되는, 이중적 표준화 과정을 말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는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일탈적인 것도 아닌,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또 다른 버전이다.

그동안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에 관한 구술은 시설 내 경험에 한정된 피해 증언으로 수집되고 해석되었다. 그에 따라 형제복지원에 대한 기술에서도 폐쇄된 곳에서의 폭력이라는 공간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와는 시각을 달리해 이 글은 시설 수용 경험의 의미를 시간 측면에서 검토한다. 형제복지원에서 입은 직접 피해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을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검토해 이들의 라이프코스 구조를 확인한다.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형제복지원 수용 전과 후의 관계망의 성격이다. 다음으로, 이들이 수용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시간에 관한 언급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생애 초기에 시설에 수용되었던 경험이 생애 전체에 남긴 흔적을 드러 내려는 맥락에서 이 글은 이들을 ‘피해생존자’가 아닌 ‘시설수용자’로 칭한다. 시설 수용이 이들의 생애를 규정하는 핵심 경험이자 사건이기 때문이다. 피해생존자라는 표현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강조³⁾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형제복지원구술 프로젝트 2015; 유해정 2018; 주윤정 2018; 최종숙 2019). 이 글의 맥락에서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고, 수용된 이들로 인식된다. 이들이 입소 당시 ‘부랑인’이었는지 ‘정상인’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다.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병원 연구에서 고프먼도 정신병 환자를 병의 유무가 아닌 입원 유무로 규정했다(고프먼 2018, 158-160).

2. 연구 대상과 자료, 분석 방법

1) 자료: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수기와 구술

이 글의 자료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수기와 구술 기록이다. 먼저 수기다. 가장 일찍 발표된 것은 김영옥이 1988년에 펴낸 책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이다. 1954년에 태어난 그는 29세 무렵

3)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 피해를 증언하고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이자 “능동적인 행위 주체”(유해정 2018, 392)로 보려는 노력이다.

(1982년)에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었다. 보름 만에 풀려났고, 그때의 경험을 글로 풀어냈다. 이후에 나온 것은 한중선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규찬, 인권운동가 박래균과 함께 2012년 말에 출간한 책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이다. 한중선이 자신의 경험을 자전적 시각으로 풀어낸 글이 이 책의 1부다. 1976년에 태어난 그는 9세 무렵(1984년)에 세 살 위 누나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었다가 1987년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퇴소했다.

한중선의 책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사회에 다시 부각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탈시설정책위원회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된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대책위’로 약칭)⁴⁾가 2013년에 구성되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대회, 토론회 등을 조직했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7; 최종숙 2019, 111-113). 형제복지원대책위는 특히 수용자들의 구술을 수집하는 일에 집중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피해당사자의 증언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 글에서 활용한 구술 자료의 대다수는 그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2013년 10월 10일에 열렸던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18명의 구술 기록이 발표되었다. 이 기록은 최초의 구술

4) 이하 본문에서 형제복지원대책위가 펴낸 자료집을 인용할 때에도 약칭 표현을 사용한다.
예: 형제복지원대책위(2013).

발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증언의 성격을 띤 것이라 A4지 평균 5-6매로 그리 길지 않다.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윤정이 2014년에 수집한 5명의 구술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생애사 자료로 볼 수 있을 만큼 상세하다. 같은 해에 신문 <한겨레>는 박태길의 생애사를 9회에 걸쳐 실었다. 2015년에는 2013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구술 기록을 묶어서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 기록집』을 출간했다. 여기에 11명의 구술 기록이 담겨 있다. 분량이 그리 길지 않고 편집되기는 했지만 기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의 생애이력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는 2017년에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의 지원을 받아 박귀병·김은지·김일환·김재형·류연미·주윤정이 수집한 5명의 구술 기록이다. 이 기록 또한 2014년에 수집된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자료와 같이 정보가 상세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자료에서 확인한 구술 기록은 총 42건이다. 이것은 동일인의 구술이 여러 지면에 소개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복을 제외하면 구술자는 총 31명이다(표 1)). 이들의 구술 기록이 이 글에서 검토한 자료다. 구술자 이름은 발표 당시 사용되었던 것을 따랐다.

〈표 1〉 구술자 명단(입소 연도 순)

	이름	비고	성별	출생 연도	입소 연도	입소 계기	퇴소 연도	퇴소 계기	수록 지면						
									1	2	3	4	5	6	7
1	황송환	가명: 강성철	남	1953	1969	사설	1979	탈출				0		0	
2	김희곤		남	1960	1970	사설	1978	가족						0	
3	박종복		남	1962	1970	사설	1987	폐쇄		0					
4	홍두표		남	1968	1972	사설	1987	폐쇄				0		0	
5	허정오	가명: 허정우	남	1969	1975	사설	1985	탈출			0	0			
6	박경보		남	1963	1976	사설	1981	탈출						0	
7	이정수	가명	남	1960	1978	경찰	1978	가족			0				
8	김상수	가명: 김동규	남	1965	1978	경찰	1984	가족							0
9	박순이	가명: 하안녕	여	1971	1980	경찰	1986	탈출						0	0
10	이상철		남	1967	1981	경찰	1982	퇴소			0				
11	손정운	가명: 손정민	남	1969	1981	경찰	1985	가족							0
12	최준수	가명	남	1970	1981	이송	1985	탈출			0				
13	김영덕	가명: 김영수	남	1963	1981	경찰	1987	탈출			0			0	
14	김영욱		남	1954	1982	사설	1982	가족	0		0				
15	황영식		남	1961	1982	사설	1983	가족			0				
16	최승우		남	1969	1982	경찰	1986	가족						0	0
17	정주희	가명	여	1973	1982	경찰	1987	폐쇄			0				
18	김철웅		남	1971	1982	사설	1987	폐쇄						0	
19	양세환	가명: 양세원	남	1971	1982	사설	1987	폐쇄			0				
20	이상우	가명	남	1976	1982	사설	1987	폐쇄			0				
21	이채식		남	1969	1982	신고	1987	폐쇄							0
22	이혜율		여	1976	1983	경찰	1987	폐쇄						0	
23	박태길		남	1971	1984	경찰	1986	가족			0	0	0		
24	오민철	가명	남	1971	1984	사설	1986	폐쇄			0				
25	이항직		남	1972	1984	신고	1987	폐쇄						0	
26	한신에	한중선의 누나	여	1974	1984	신고	1987	폐쇄			0				
27	한중선		남	1976	1984	신고	1987	폐쇄		0	0	0			
28	이상명	가명: 이상훈	남	1971	1985	사설	1987	폐쇄						0	
29	윤세준	가명	남	1975	1985	신고	1987	폐쇄			0				
30	최태준	가명	남	1974	1986	경찰	1987	가족			0				
31	한영태	한중선의 아버지	남	1947	1986	사설	1987	폐쇄			0				

주: 1. 『형제복지원』(김영욱 1988), 2. 『살아남은 아이』(한중선 외 2012), 3.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4.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4), 5. 한겨레 신문(2014), 6. 『숫자가 된 사람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7.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2017)

생애사의 맥락에서 형제복지원 수용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보면 구술 다수가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에 한정된다. 구술의 초점은 시설에서 입은 피해에 맞추어졌고, 입소 전과 퇴소 후의 삶은 많은 경우 도식화된 틀에 따라 요약되거나 생략되었다. 구술 대부분이 형제복지원에서 입은 피해를 증언할 것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합해 형제복지원 수용 이전과 이후의 생애이력을 최대한 구성하고자 애썼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료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많은 사람들 중에 구술한 이들은 극소수다. 이들이 형제복지원 생활과 수용자들의 생애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외 2012)라는 표현처럼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살아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⁵⁾ 한편으로는, 부랑인이 아닌데 잡혀 들어갔다는, 암묵적으로 기대되는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이들(이소영 2014, 265-270)이 과대 대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형제복지원 경험을 중요한 생애 사건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같다.⁶⁾

5) 2018년 말 기준 형제복지원대책위에서 연락이 닿는 사람은 약 300명이다. 이들의 성격을 알고 있을 한종선 씨에게 그 300명과 구술한 이들의 성격을 물어본 적이 있다. “(형제복지원대책위에 연락을 하고, 구술까지 한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운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한종선 씨는 “둘 다 맞다”고 답했다(면담일: 2018.7.2.).

6)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통합(수용)하는 방식 면에서 보면 구술자들은,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자기 서사의 중심에 놓는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김원영 2018, 183),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계기이자 사건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가치는 크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 시설에 들어가기까지의 맥락과 시설 생활, 그리고 퇴소 이래의 생애이력을 볼 수 있는 자료는 흔치 않다. 특히 같은 곳을 거쳐 간 다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면서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덕분에 그런 시설을 거쳐 간 사람들의 생애이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의 맥락에서 이들의 구술은 또 다른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힐 가능성을 연다.

2) 연구 대상

시설수용자 31명의 특징을 시간의 측면에서 요약해보자. 라이프코스를 구조화하는 측면에서도, 구술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규정하는 측면에서도 형제복지원에 몇 살에 들어가서 몇 살에 나왔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회적 시간대에 이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입소시기로 보면 절반이 1980년대 초중반에 10대 초중반의 나이로

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 의미에서 증언의 형태로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은 다수에게 형제복지원 경험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핵심 계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 경험 이 그들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일지는, 그것이 실제로 이들의 생애에 미친 객관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알 수 없다.

들어갔다. 출생연도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다. 그러나 1969년 형제육아원이었던 시절에 들어간 사람도 3명 있으며, 10세 이하일 때 입소한 이들도 6명 있다.⁷⁾

〈표 2〉 입소 시기(연도와 연령)

	10세 이하	11~ 13세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합계
1969~1971년(형제육아원)	1	1		1		3
1972~1975년(형제원1기)	2					2
1976~1979년(형제원 2기)			2		1	3
1980년~1986년(형제복지원)	3	7	9		4	23
합계	6	8	11	1	5	31

주: 시설의 성격과 규모, 위치 변화에 근거해 시기를 구분했다(김일환 2019 참조).

이러한 입소현황과 1970-80년대 한국사회 관계망 성격의 직접적인 연관을 밝히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제때’와 ‘제자리’라는 범주와 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들(가족과 학교, 노동시장 등)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햇토리 2006)에, 그 틀에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화되었으리라고 추정할 따름이다.⁸⁾ 그 나이 때라면 있어야 할

- 7) 이러한 분포가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이들 전체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입소정원 변화 추이는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형제복지원재단이 펴낸 자료집에 수록된 ‘연도별 입퇴소 및 잔류자 현황’에 따르면, 1975~1979년에는 2,813명이 입소했고, 1980~1986년에는 연평균 3,409명이 입소했다(형제복지원재단 2010a, 527).
- 8) 가족과 노동시장 제도의 성격을 말할 때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은 막 형성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성별분업에 기반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규범으로 자리 잡은 시기로 여겨진다(김은희 1993; 강이수 2009; 조은주 2018). 10대 후반의

곳이 형성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그들을 수용할 시설도 제도화되고 있었다고 말이다(김일환 2019).

10대 초중반에 입소한 이들은 형제복지원에서 대개 4-6년을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이들이 더 오래 머무른 경향이 있지만 그 관계의 성격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수(17명)가 시설 폐쇄로 나왔기 때문이다.

〈표 3〉 입소 당시 연령과 입소 기간

입소 당시 연령	입소 기간 ⁹⁾				합계
	1년 미만	1~3년	4~6년	7년 이상	
10세 이하			3	3	6
11~13세		1	6	1	8
14~16세	1	5	5		11
17~19세				1	1
20세 이상	2	2	1		5
합계	3	8	15	5	31

미혼여성노동력 활용에 기반을 둔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에서 남성노동력을 핵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시기의 특성으로 강이수(2009, 67-68)는 3가지를 꼽는다. 첫째, 남성의 취업과 일이 우선시 되는 ‘일중심적 사회조직’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남성 1인의 임금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한 중산층 가정이 등장하면서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이들 중산층을 중심으로 ‘남성=일/여성=가정’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증대로 이어졌다.

9) 몇 차례 드나든 경우 시설에 있었던 기간을 합쳐서 산출했다.

종합하면, 구술자들은 대략 10세 전후부터 10대 중후반까지 5년 내외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냈다. 중학교를 마칠 나이인 16세 이후에 입소한 이들은 6명밖에 되지 않는다. 10대 초중반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로, 삶의 이력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이 시기에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있었다.

3) 분석 방식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의 생애사적 위치와 그 의미를 밝히려면 생애 단위의 분석과 서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논문 분량의 짧은 글에서 생애 각각을 상세하게 기술하기에 31명은 많다. 3명 이상만 되어도 이 방식을 따르기 어렵다. 구술의 축약과 생애의 유형화가 불가피하다.

분석 사례 수가 많을 때에 기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애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생애 단위를 유지하지 않고 테마나 국면별로 구술을 묶어서 기술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식은 생애사적 맥락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형화 및 대표사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생애별 차이는 드러내지 못한다(한신갑·이상직 2017, 109-110).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을 절충한다. 형제복지원 입소, 형제복지원 퇴소, 형제복지원 퇴소 이후라는 주요 국면 순으로 서술하되, 각 국면에서 구

술자의 생애를 유형화해 제시할 것이다. 유형화 기준은 각 국면에서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망)의 성격이다(한신갑·이상직 2017, 124-125). 관계(망)은 각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이전과 퇴소한 이후에 사회에 있던 자리를 각각 드러내기 때문이다.¹⁰⁾¹¹⁾

입소 전 관계는 가족관계가 있던 경우와 없던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나누어 5가지(부모, 아버지, 조부모(친척), 고아원, 기타)로 최종 구분했다. 이 관계는 형제복지원 입소 경위, 형제복지원 생활, 퇴소 경위, 퇴소 이후 생애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1차 요인이다. 퇴소 후 관계는 결혼 여부로 구분했다. 원가족을 제외하면 결혼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그 여부를 퇴소 후 이력을 규정한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10)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이들의 경험을 “사회적 고통”(p. 393)으로 맥락화한 유혜정(2018)도 이들의 생애이력을 기술하는 준거로 관계(망)에 주목하고, 생애의 특징을 관계(망)의 해체로 본다.
- 11) 라이프코스를 형성하는 관계망의 구조와 그 변화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 점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와 같이 불안정한 라이프코스를 경험한 이들에게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일례로 노숙인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독신인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반대로 (여러 차례의) 불안정한 결혼 관계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성은·고은정 2010). 이러한 경향은 이 글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 4명 중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한신에 씨를 제외한 3명 가운데 결혼한 이는 2명이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별 차이를 부각하기에는 여성 사례 수가 적고, 다른 한편으로 이 글에서는 둘의 공통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3.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

이 장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의 성격을 수용자들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이들의 생애는 크게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입소 전’과 ‘입소’, ‘퇴소 후’다. 생애 유형을 나누는 것은 각 국면에서의 관계망의 성격이다. 관계망의 성격으로 각 국면은 일정 정도 연결된다.

1) 입소까지

복지원 입소까지의 생애에서 공통점은 유년기 가족 관계의 불안정 또는 부재다. 복지원 입소 전에 조부모나 큰아버지 등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관계’가 살아 있었던 이들은 31명 중 17명이다. 8명은 고아원 등 ‘시설’에 있었다. 나머지 6명은 ‘기타’로 분류된다. 입양되어 양부모와 있었거나 홀어머니 사망 후 출가해 있었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등 독립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17명 중 부모와 함께 살았던 이는 3명(이상우, 이정수, 최태준 씨)이다. 이 중 최태준 씨¹²⁾를 제외한 2명의 입소 경위는 납치에 가까웠다.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탑차에 태워져 복지원으로 바로 끌려왔거나(이상우),

12) 그는 광주에 살다가 가출한 후 부산에 왔다가 싸움에 휘말려 파출소로 이송되었고 이를 계기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 1986년 14세 무렵이었다. “파출소에서는 거기 복지원 가면 기술도 배우고 뭇도 하고 그러니까, 전과도 안 올라가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태준 구술: 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119)

부산에 친구와 놀러왔다가 역 대합실에서 잡혀가 파출소를 거쳐 복지원에 수용되었다(이정수). 당시 18세였던 이정수 씨를 제외하면 10세 내외였을 때였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27, 101, 107).

나머지는 어머니 사망이나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살았거나(11명) 조부모(2명)나 큰아버지(1명) 등 친척집에서 생활했다. 아버지와 사는 경우, 아버지가 재혼하기도 했는데, 재혼 후 불편감으로 집을 나왔거나(박태길)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오기도 했다(김철웅, 이상명). 부산에서 태어난 박태길 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재혼하자 가출했다. 1984년, 14세 무렵이었다. 이후 그는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닦이 등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용두산 공원에서 자다가 형제복지원 차량에 실렸다(OH_14_003_박태길_06). 포항에서 살던 김철웅 씨는 부모 이혼 후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부산에서 한 달 정도 배회하다가 복지원에 끌려갔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91). 제주에서 살던 이상명 씨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던 와중에 의붓어머니의 가출을 계기로 친어머니를 찾아 부산에 왔다. 노숙생활을 하던 중 고아원으로 갔고, 곧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부산역에서 복지원에 끌려갔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30). 손정운 씨와 같이 의붓어머니의 구박으로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다. 그는 부산역 근처에서 배회하다 경찰서에 끌려갔고 부산시청 사회복지과를 거쳐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OH_17_008_손정운_06).

평소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가 급기야 자식을 파출소에 ‘신고’해 복지원으로 이송된 경우(이향직, 한종선, 한신예)도 있다. 이향직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로 아버지와 살았다. 의상실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식사

를 배달했던 그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고, 처음으로 폭력에 저항한 10세 무렵부터 가출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이끌려 파출소로 갔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22). 한중선 씨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고, 구두담이를 했던 아버지와 누나 둘에 대한 기억만 있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마셨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한중선 씨를 자주 때렸다. 그럴 때면 그는 작은 누나(한신예)와 파출소로 피신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신고로 그 파출소에 인계되어 형제복지원으로 이송되었다(한중선 외 2012, 29-30).

또 다른 유형은 가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린 나이에 감행한 장거리 이동 중에 잡혀간 경우(김상수, 박순이)다. 친구와 함께 서울행 기차를 탄 김상수 씨는 용산역에서 경찰에 이끌려 파출소로 갔다. 밤 9시 무렵이었다. 파출소에서 인적 사항을 얘기했지만 결국 서울 소년의집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생활했다. 이후 집에 보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버스를 탔지만 형제복지원으로 이송되었다(OH_17_008_김상수_06). 진주 문산에서 태어난 박순이 씨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밑에서 오빠 둘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생활했다. 아버지의 제안으로 2학년을 시작할 무렵부터 절에서 지냈다. 절에서 지내며 2학년을 마치고 난 방학에 집에 왔고, 그때 의붓어머니로부터 부산에 사는 오빠에게 가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길로 진주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그러나 부산역에 마중 나와 있겠다는 오빠는 없었고, 파출소를 거쳐 결국 형제복지원으로 이송되었다(OH_17_008_박순이_06).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이상명 씨도 어린 나이에 사실상 무작정 부산으로 왔다가 고아원을 거쳐 형제복지

원에 입소하게 된 경우다.

마지막으로 조부모 집(최승우, 이혜율)이나 큰아버지 집(오민철)에 있던 상황에서 잡혀 간 경우다. 먼저 최승우 씨다. 부모 이혼 후 아버지는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떠났고 최승우 씨는 부산에서 조부모와 삼촌과 함께 살았다. 1982년 3-4월 개금중학교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그를 개금파출소 순경이 잡았다. 그리고는 가방을 뒤져 나온 빵을 보면서 훔친 거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형제복지원 차량에 태워 입소시켰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63-264). 이혜율 씨는 7세였던 1983년에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5세 동생과 집을 나와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가 부산에 내렸다. 부산역에서 역무원에 이끌려 파출소에 갔고, 그 길로 동생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갔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96-297). 서울에서 태어난 오민철 씨는 어린 시절 제주도로 이사를 왔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망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제주도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가 집을 나와 형이 있는 부산으로 왔다. 14세 무렵이었다. 부산에서 형을 만나지 못하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15).

나머지 8명은 고아원(아동보호소, 보육원 등 포함)에 있었다.¹³⁾ 일례로 김영덕 씨는 “미아로 발견되어 진영 진수원-김해 방주원-거제 임마누엘 보육

13) 마지막 6명은 ‘기타’로, 출가, 입양, 가정을 꾸린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상철 씨가 한 사례이다. 그는 홀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친구의 권유로 출가해 강원도에서 생활했다. 스님의 권유로 부산 범어사로 갔다가 다시 강원도로 돌아오는 길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55-56). 입소 경위는 다른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로 기술하지 않는다.

원을 거쳐, 12세 전후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시골 농가의 농사일이나 허드렛일을 하던 남의집살이로 약 3~4년간 보냈고, 18세를 전후하여 부산 형제복지원에 처음 입소하였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66) 1981년 무렵이었다. 박경보 씨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형과 함께, 또는 홀로, 대전 시립아동보호소와 천안 신생보육원, 서울 소년의집 등 고아원에서 생활했다. 그 사이에 옥천에서 2년간 머슴살이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형을 찾기 위해 서울 소년의집에서 도망쳐 도둑 기차를 타고 내린 곳이 부산역이었다. 16세 무렵(1978년)이었다. “아직도 생생해요. 부산역 대합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두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단속차에 태웠어요. 아무런 절차도 없었어요.”(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1) 이들 사례는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진 이들의 입소 경위를 잘 보여준다. 여러 고아 시설을 전전하다가, 그 사이에 농촌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부산에서 앵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경찰이나 형제복지원 관계자에게 잡혀 입소하는 경로다.

정리하면, 입소 계기는 크게 네 가지다. 경찰을 통해 복지원에 인계된 경우(11명), 형제복지원이 직접 끌고 간 경우(14명),¹⁴⁾ 신고로 경찰을 매개로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경우(5명), 고아원에서 바로 이송된 경우(1명)다.

14)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은 2010년에 폐된 자료집에서 형제복지원이 직접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는 점을 부인했다(형제복지원재단 2010a, 38).

〈표 4〉 입소 전 관계와 입소 계기

입소 전 관계	입소 계기				
	시설	경찰	신고	이송	합계
아버지	3	5	3		11
고아원	6	1		1	8
기타	3	1	2		6
조부모(친척)	1	2			3
부모	1	2			3
합계	14	11	5	1	31

입소 계기는 입소 전 관계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표 4〉). 아버지와만 연결되어 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인계된 경우가 가장 많고, 아버지의 ‘신고’로 입소하게 된 경우도 있다. 부모나 조부모(친척)와 연결되어 있던 이들도 경찰에 의해 인계된 경우가 많다. 반면 고아원에 있다가 나와 잡혀 들어간 이들은 대개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차량에 바로 태워졌다. 아마도 형제복지원이 직접 잡아갔던 대상은 고아원 출신 등 잡아가도 나중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이들은 모두 관계망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김영옥 씨와 같이 맥락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가족관계가 취약했거나 아예 없었던 이들이었다. 이들을 사회에서 잡아줄 끈이 없었거나 약했다는 뜻이다. 그랬기 때문에 쉽사리 뺏혀나갈 수 있었다. 이들의 생애는 1970~80년대에 가정이 불안정할 때 아이가 얼마나 쉽게 뿌리 뽑힐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아이들이 뿌리 뽑히지 않게 잡아주는 사회적 지지망은 없었고, 그렇게 뿌리 뽑힌 아이들을 활용하려는 연결망만 있었다.

2) 입소에서 퇴소까지

입소한 이들은 짧게는 15일(김영옥 씨)에서 길게는 17년(박종복 씨)간 시설에서 생활했다. 31명의 경험을 보면, 1-3년을 머물렀던 이들이 8명이고, 4~6년을 머물렀던 이들이 15명이다. 7년 이상을 보낸 이들도 5명이다(표 5).

퇴소 계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퇴소 계기를 확인할 수 없었던 1명(김영택)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사례 수가 가장 많은 계기(14명)는 ‘폐쇄’다. 이들에게는 퇴소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1987년 1월 검찰 조사에서 촉발된 보건사회부와 부산시의 일련의 조치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원생 대부분이 퇴소했는데, 이 무렵 나온 경우다. 다음으로는 가족 방문에 따른 퇴소(‘가족방문’)다(9명). 가족이 찾아와 문의해도 형제복지원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 되돌아갔다는 구술¹⁵⁾도 있지만, 9명은 가족이 찾아와 퇴소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6명은 ‘탈출’했으며, 한 사람은 사무장의 추천으로 ‘퇴소’했다(표 6 참조).

먼저, 폐쇄로 나온 이들이 많은 것은 이해할만하다.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밖에서 이들을 끄집어내 줄 관계도 미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쉽게 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수용자들은 버스에 실려 전국의 시설

15) 통지문이나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술도 있다. 이렇게 구술한 이들의 입소 연도를 확인했으나 패턴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들은 각각 1978년(이정수), 1982년(김영옥), 1986년(최태준)에 입소했다.

에 보내졌다. 부산 시내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러 구술을 종합하면 입소 전 주소지나 퇴소 당시의 나이 등에 따라 갈 곳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를 언급한 구술이나 언론 기사를 보면 분류 기준이나 퇴소 과정이 체계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¹⁶⁾

다음으로 가족 방문에 따른 퇴소다. 이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형제복지원의 성격을 폐쇄적인 감금 시설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게 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먼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이 찾아와 퇴소한 경우가 있다. 친구와 고등학교 졸업여행 차 온 부산에서 잡혀 간 이정수 씨는 아버지의 방문으로 2개월 만에 형제복지원에서 나왔다. 그는 입소 후 자신이 집에 보낸 편지를 아버지가 보고 온 것이라 짐작했다. 광주에 살다가 가출한 후 부산에 왔다가 싸움에 휘말려 파출

16) 일례로 홍두표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구술한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74-275). “원장이 구속되고 나서 거기서 총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층대장인데 “사고 나니까 다 잠가라!” 그래갖고 방에 다 갇혔어요. 우리가 안에서 두들기고 테모를 했어요. (...) 며칠 있다가 신민당에서 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밥을 안 먹었다 하니까 (...) 식사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몇 달 안에 다 내보내주겠다, 집이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다 보내주겠다 했어요. 우리는 악마의 소굴에서 나간다는 희망으로 너무 좋아했지요. 원생들을 부산 시내 모다 놓으면 부산 시내 난리난다고 전국으로 다 뿌려버렸어. 관광버스 큰 거 와가지고 신고 가서 전국으로 뿌려버리는 기야. (...) 땡전 한 톨도 못 받았어요.” 홍두표 씨는 주소가 강원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갱생원으로 보내졌다. 그나마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는 곧 그곳에서 도망 나와 자신에게 익숙한 부산으로 왔고, 부산에서는 충무동 육교 아래에 천막을 치고 다른 형제복지원 출신자들과 생활했다. 실제로 1987년 2월부터 6월까지 대부분의 원생들이 퇴소했으나, 1년이 지났을 무렵 나온 신문 사설은 이렇게 나온 이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지금까지 대도시를 배회하게” 되었다며,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1년이나 방치해둔 탓에 시민생활이 불안해졌으니 당국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경향신문 1988/07/30).

소로 이송되고 형제복지원으로 간 최태준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통지문을 본 아버지가 찾아와 6개월 만에 나왔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120). 『형제복지원』(1988)의 저자 김영옥 씨도 복지원에서 보낸 통지문을 받은 아내가 찾아와 2주 만에 퇴소했다. 이들 3명은 입소 당시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가족관계에 힘입어 나올 수 있었다. 그 결과 입소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짧다.

나머지 6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1981년에 부산에 와서 구두땀이로 있다가 20세가 되던 1982년에 술을 마시고 벤치에서 자다가 입소한 황영식 씨는 1년 정도 지내다가 형의 방문으로 퇴소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고 또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해 비교적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했다. 가출 후 부산 일대를 떠돌다가 형제복지원에 잡혀간 박태길 씨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방문으로 2년 만에 퇴소했다. “왜 2년 만에 찾아왔는가”라는 면담자의 질문에 박태길 씨는 “그러니까 2년 있었으니까 인간이 안 됐잖나. 그래갖고 온 것 같아”라고 답했다(OH_14_003_박태길_06). 의붓어머니의 구박으로 가출한 후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손정운 씨는 작은아버지의 방문으로 약 4년 만에 퇴소했다. 그런데 당시 함양에 살고 있었던 작은아버지는 방문 직전야야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온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OH_17_008_손정운_06). 최승우 씨의 경우 그가 입소한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자신과 뒤늦게 입소한 동생을 찾으러 형제복지원에 방문했다. 왜 5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방문했는가에 대해 그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형제복지원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바뀌어 자식들의 안전을 우려해 왔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 그 늦은 방문 시점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OH_17_008_최승우_06). 어머니 사망 후 서울에 사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 상경했다가 서울 소년의집을 거쳐 형제복지원에 오게 된 김상수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가까워진 목사의 도움으로 근처 친척집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그것을 계기로 형과 누나가 방문해 퇴소했다. 근 6년만이였다(OH_17_008_김상수_06). 1970년 11세 무렵에 입소한 김희곤 씨는 형제복지원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직업보도소에서 만난 “사회인”을 통해 가족과 연락이 닿아 작은아버지와 사촌형, 큰누나의 방문으로 나올 수 있었다. 7-8년만이였다. 가족 방문을 계기로 퇴소한 이들이 꽤 많다는 것에서 우리는 형제복지원의 대범함을 떠올릴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가족의 뒤늦은 방문과 소극적인 대응은 그만큼 가족 관계가 탄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도 있다.¹⁷⁾

한편, 탈출한 이들은 6명(허정오, 박경보, 최준수, 황송환, 박순이, 오민철)인데, 박순이, 오민철 씨를 제외한 4명은 형제복지원에 오기 전에 소년의집 등의 고아원에서 생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아원에서도, 형제복지원에

17) 형제복지원의 폭력성을 겪었던 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가족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이를 계기로 그 실상이 사회적으로 알려질 경우 형제복지원이 처하게 될 위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설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방문 가족에게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는 전략을 취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시설수용자를 인제한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언급도 구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김영옥 씨의 수기에는 아내가 자신을 찾아와 함께 형제복지원을 나오면서 사무원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김영옥 1988, 280-281). 이 점은 다소 의아하다. 그 맥락은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당시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낮았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이들의 가족 관계가 그리 탄탄하지 못해 실령 시설을 방문해 수용자를 데리고 나갔더라도 수용을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문제로 인식했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할만한 의지와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서도 탈출과 입소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아로 지내면서 시설 입·퇴소를 반복했기에 시설에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심리적 벽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것이 탈출 시도의 배경이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박경보 씨는 탈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17세 무렵이었던 1979년경 그는 같은 소대원 8명과 함께 쇠창살을 쇠톱으로 조금씩 자른 후 어느 날 새벽에 탈출했다. 1차 탈출 시도였다. 주례산을 넘어 사상역으로 가는 도중에 잡혀 돌아온 그는 1980년 여름에 같은 방식으로 쇠창살을 잘랐고, 그 틈으로 10명이 함께 탈출했다. 처음 입소한지 5년이 되어가던 무렵이었다. 1차 시도 때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곧 철수를 앞둔 형제복지원 입주 기업(요지 공장) 사장이 알려준 주소지였다. 그곳에서 2개월가량 숨어 지냈고, 6개월이 될 무렵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나 시장에 갔던 일행 1명이 잡히면서 나머지 9명은 급히 서울로 도망쳤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6). 박순이 씨도 입소 6년째가 되던 1986년 무렵 쇠창살을 쇠톱으로 잘라 일부 소대원들과 함께 탈출했다. 오민철 씨도 2년 만인 1986년 무렵 담을 넘어 집단 탈출했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23). 허정오 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을 넘어 탈출했다. 황송환 씨는 1979년 어느 날 불침번을 서다가 혼자 산으로 도망쳐 탈출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15).¹⁸⁾

18) 사례 수가 적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 계기는 ‘퇴소’다. 이상철 씨가 유일한 사례다. “형제복지원에서 1년 정도 생활했는데, (...) 사무장이 부르더니 “내가 요번에 니를 지켜봤는데, 니는 여 있으면 안 되겠다. 보내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 갔더니 부산시 공무원,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있었어요. 나를 적에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홀트아동복지로 갔어요.”(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정리하는 차원에서 입소 전 관계와 입소 기간, 그리고 퇴소 계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다.

〈표 5〉 입소 전 관계와 입소 기간

입소 전 관계	입소 기간				
	1년 미만	1~3년	4~6년	7년 이상	합계
아버지		3	7	1	11
고아원			4	4	8
기타	1	4	1		6
조부모(친척)		1	2		3
부모	2		1		3
합계	3	8	15	5	31

먼저, 〈표 5〉로 정리한 것처럼 입소 전 관계와 입소 기간은 일정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고아원 출신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머물렀고, 부모와 있었던 이들은 입소 기간이 길지 않다. 그 사이에 아버지나 조부모와 관계가 있었던 이들이 있다.

59) 그가 퇴소한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박경보 씨가 말한, 1년에 한두 차례 아이들 수백 명 중 10명 남짓한 아이를 다른 고아원에 보내는 방침에 따라 지명(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2)되었으리라 짐작한다. 박경보 씨에 따르면 이 때 선택되는 것은 “용꿈 꺾야 되는 일”이었다. 1982년 퇴소 당시 이상철 씨는 17세였다.

〈표 6〉 입소 전 관계와 퇴소 계기

입소 전 관계	퇴소 계기					
	폐쇄	가족	탈출	퇴소	미상	합계
아버지	6	4	1			11
고아원	3		4		1	8
기타	3	2		1		6
조부모(친척)	1	1	1			3
부모	1	2				3
합계	14	9	6	1	1	31

흥미로운 것은 입소 전 관계와 퇴소 계기의 상관관계다(〈표 6〉 참조). 부모가 있었던 이들 3명의 경우 2명은 가족이 곧 찾아왔다. 나머지 1명은 다소 특별한 경우(이상우 씨)로 양재공장에 드나드는 이를 통해 부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만 있었던 경우는 대부분 폐쇄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아원 출신인데, 이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퇴소 계기가 이후 삶의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 방문으로 나왔더라도 보통은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퇴소, 그 후

그렇다면 퇴소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구술 대다수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와 그곳 생활에 집중되어 있어서 퇴소 이후

의 이력을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네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가족관계와 연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가족관계와 연결된 경우는 다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경우와 곧바로 끊어진 경우로 나뉜다. 한편, 탈출이나 폐쇄로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이들은 형제복지원에서 맺은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와 그마저도 없는 경우로 나뉜다. 이들 경우를 차례로 살펴보자.

앞에서 아버지, 또는 아내의 방문으로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사례(이정수, 최태준, 김영욱)를 소개했다. 이정수 씨는 2달 만에 나와 19세의 나이로 해군에 입대해 6년을 복무했다. 해군 복무 이후 이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일종의 직장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생애 경로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 14세에 들어가 6개월 만에 나왔던 최태준 씨는 퇴소 후 중학교로 돌아갔다. 그 이후의 생애 이력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술에 따르면 그는 학교 졸업 후 부산 대우조선에서 10년간 일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30세 무렵에 들어가 2주간 있었던 김영욱 씨 역시 자신의 입소 사실을 믿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저항으로 3여 년간 가출 생활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 아내, 자식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70-71). 결국 이들은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짧았던 공백을 메웠다.

가족 방문으로 퇴소한 다른 6명은 퇴소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손정운 씨와 김상수 씨는 그나마 가족관계를 통해 생계 수단을 확보했다. 10세 무렵 들어가 15세 무렵에 작은아버지의 방문을 계기로 퇴소한 손정운 씨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4개월가량 지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이혼한 어머니를 찾아 상경했으나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때부터 서울에서 홀로 생활했다. 처음에는 천호동 공장에서 일하다가 세탁소 배달, 가스 배달 등을 전전한 그는 약 5년간의 낮선 서울생활을 접고 1990년 무렵 부산에 내려와 가스배달 일을 했다. 이때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결혼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간 덤프트럭을 몰았다(OH_17_008_손정운_06). 14세 무렵 입소해 1980년대 중반 20세 무렵에 퇴소한 김상수 씨도 비슷한 이력을 밟았다(OH_17_008_김상수_06). 그가 퇴소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부산의 누나 집에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누나의 친구가 가진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누나 집을 방문한 “형님”의 권고로 택시 운전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갔다. 바로 택시를 운전하지는 못하고 오토바이 가스 배달을 4-5년 하다가 그 형님의 사망을 계기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는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한다. 이 둘은 그나마 가족 관계를 통해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4명에게 가족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황영식 씨는 현재 혼자 산다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다. 1984년 14세 무렵 입소해 1987년 17세 무렵에 아버지의 방문으로 퇴소한 박태길 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퇴원 후 가출해 공원 근처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중 가끔 가는 식당 주방장의 소개로 봉고차를 탔고, 1년 간 섬에 갇혀 일했다. 이후 부산, 목포 등지에서 배를 탔고, 뱃일을 그만 두고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지금은 혼자 생활한다. 1980년대 초 15세 무렵에 들어가 4년을 생활한 최승우 씨는 아버지의 방문으로

퇴소했다. 퇴소 후에는 입소 전과 마찬가지로 조부모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에서 퇴소한 이들과 어울리며 “조금 방탕한 생활”을 했다.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아다녔고, 알코올중독 증세도 있었으며,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있다가 함께 나왔던 친동생이 2009년에 자살한 것을 계기로 “철이 들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48-249). 현재는 몸이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11세 무렵에 들어가 8년 가까이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하다가 작은아버지의 방문으로 퇴소한 김희곤 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종사촌형의 소개로 ○○상사에 취직했지만 사고를 당했고, 그 책임을 두고 친척들 간에 다툼이 생겨 집을 나와 상경했다. 서울에서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목수 계통의 일을 하면서 생활했으나 7년 전부터 류머티즘이 발병해 일하지 못하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60-65).

그렇다면 ‘폐쇄’로 나온 이들의 이력은 어떠했을까? 이들에게 퇴소는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상당수는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다. 양세환, 홍두표 씨는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서울, 현 ‘은평의 마을’)으로 이송되었고, 김철웅, 이상명, 이상우, 이향직, 한종선 씨는 소년의집(서울, 부산)으로, 이혜을 씨는 남광아동복지원(부산)으로, 정주희 씨는 새들원(부산)으로, 윤세준 씨는 희락원(부산)으로 이송되었다. 뚜렷한 기준은 확인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나이에 있던 사람은 서울 소년의집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에 있던 사람은 부산 소년의집으로, 그 이상 나이인 사람들은 갱생원에 보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소년의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갱생원으

로 보내졌다는 구술(이상우, 한종선)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의집을 “좋은 곳”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김철웅 씨를 제외하면 소년의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이는 없다.²⁰⁾ 시설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 수도, 형제복지원 생활에서부터 비롯된 문화 차이나 편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결국 다수는 시설에서 도망쳐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고, 일부는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 일부는 소년원이나 교도소, 정신병원을 경험했다. 부산 소년의집을 거쳐 서울 소년의집으로 갔던 한종선 씨는 소년의집에서 나와 여러 공장에서 생활하다가 교도소에도 몇 차례 갔다(한종선 외 2012, 93). 서울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으로 이송된 홍두표 씨는 그곳을 탈출해 부산으로 와 형제복지원 출신들과 어울리면서 껌팔이, 신문팔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정신병원으로 갔고, 이후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79).

형제복지원에 오기 전부터 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입소 전에 가족관계가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19) 김철웅 씨(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99)나 한종선 씨(한종선 외 2012, 81)의 구술에는 처음에 부산 소년의집에 갔다가 거기에는 초등학교 시설이 없어서 서울 소년의집으로 보내졌다는 언급이 있다. 1975년에 개원한 서울 소년의집에는 국민학교가 있었다.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어린이들은 부산에 있는 ‘소년의집 실업중학’(1970년 설립)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20) 김철웅 씨는 소년의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철강회사에 취직했다. 이후 몇 년간 돈을 모아 아버지를 찾았고 사망 소식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어머니를 찾았고 과거의 일에 대해 서로 용서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는 소년의집과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수녀님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99-210).

그나마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던 이들은 시설이 폐쇄되기 이전에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폐쇄로 나온 이들에게 가족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²¹⁾

형제복지원에서 탈출한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지만 형제복지원에 오기 전부터 시설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와 연결될 만한 분명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일정 기간 시설을 전전하다가 온갖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²²⁾

〈표 7〉 입소 전 관계와 퇴소 후 관계

입소 전 관계	퇴소 후 관계					
	비혼	결혼	미상	비해당	동거	합계
아버지	5	6				11
고아원	7		1			8
기타	2		1	2	1	6
조부모(친척)	2		1			3
부모	1	1	1			3
합계	17	7	4	2	1	31

〈표 7〉은 결혼 여부로 퇴소 후 관계를 구분하고 이것과 입소 전 관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결혼한 사람은 7명인데, 여성은 2명이다. 남성에

21) 그럼에도 많은 경우 가족을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관계로서의 의미는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찾지 못했고, 찾았더라도 가족관계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22) 퇴소 유형과 관계없이 퇴소 후 생계를 꾸리는 수단으로 언급된 일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팔이(깎, 신문, 불펜, 귀이개), 중국집 배달, 노름판 야바위, DJ, 유흥업소, 선원, 낚시 바늘 공장, 보석공장, 사출공장, 구두공장, 가방공장, 벡타이공장, 구두닦이, 건설현장 일용직, 가스배달, 비디오대여점, 어묵장사, 트럭운전, 택시운전, 기초수급자.

한정하면, 결혼한 이들은 입소 당시 아버지의 폭력이나 의붓어머니의 구박을 피해 가출한 후 경찰에 인계된 경우가 많다.²³⁾ 일부는 가족의 방문으로 나왔고 일부는 시설이 폐쇄되면서 나왔지만 퇴소 후 택시운전이나 트럭운전, 장사 등 생계유지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통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주위 관계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대개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들이었고, 그런 일을 지속하는 데에도 비상한 노력이 필요했다(OH_14_008_박태길_06; OH_17_008_김상수_06).²⁴⁾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입소, 형제복지원 퇴소, 형제복지원 퇴소 이후 국면으로 구분해 31명의 구술을 요약하고, 관계망의 성격 측면에서 유형화했다. 김영옥 씨와 같은 예외 사례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들의 삶은 제대로 된 시간표가 없는 삶이었다.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관계, 직장 관계, 결혼 관계 등 관계망을 누적적으로 형성해갈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에 들어올 당시 절반 가까이는 가족이 없었다. 가족이 있던 이들 중에도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형제복지

23) 고아원에 있었거나 조부모나 작은아버지 등 친척집에 있었던 이들은 퇴소 후에도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들과 '가출'한 이들의 차이는 관계의 단절을 주도한 주체가 타인인지, 자신인지이다. 가출한 이들은 적어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는데, 입소 이전 경험과 퇴소 이후 삶의 이력의 관계를 규명하려면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24) '입소 전 관계'와 '퇴소 후 관계'가 연결되는 방식을 이해할 때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입·퇴소 시기다. 고아원에 있었던 이들은 대개 10세 이전이나 10대 초반에 입소한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부모 포함)가 그나마 있던 이들은 상당수가 10대 중반에 입소했다. 입소 시점의 차이는 입소 기간 차이와도 연결되는데, 늦게 입소한 이들의 입소 기간이 더 짧다. 결혼한 7명은 모두 10대 중반에 입소해 형제복지원에서 5년 이내(상당수는 3년 이내)로 머물렀다.

원 입소로 그마저도 단절되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단절된 관계를 보완할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형제복지원 내에 초등학교 분교가 설치된 때는 1984년이었고, 야간중학교는 1986년에 개설되었다.²⁵⁾ 시설이 폐쇄되기 불과 몇 해 전이다. 구술에서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언급은 꽤 있지만, 퇴소 이후에 학교를 이어 다녔다는 언급은 가족 방문으로 퇴소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학교를 보내줄 만한 관계가 없기도 했고, 생계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김철웅 씨를 제외하면 시설에 간 이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도 순탄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이 제공했던 여러 직업훈련은 소수만 받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었다(소준철 2018). 그 결과 대부분이 퇴소 이후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공식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그럼에도 생애이력의 차이를 낳은 것은 입소 전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관계가 있었던 이들이 형제복지원에서 비교적 짧게 머물렀으며, 형제복지원 입소 이전에 고아원 등 시설에 있었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렀다. 퇴소 계기도 조금 달랐다. 가족 관계가 있던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의 방문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런 관계가 없던 이들은 탈

25) 1983년 9월에 6개 학급(학년 당 1개) 설치가 허가되었고, 이에 따라 개금초등학교 분교가 설치되어 1984년 3월에 입학식을 했다. 학년은 나이가 아닌 학력에 따라 구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분교가 설치되기 이전에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를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원생들’이 빈번히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이다(부산일보 1984/03/16). 1986년 2월에는 야간중학교가 개설되었다. 형제복지원재단 자료집 제10권(2010b, 4) 참조.

출했거나 시설 폐쇄로 나왔다.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퇴소 이후에 결혼한 이들도 입소 전에 가족 관계가 있던 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다시 일 반화해 말하자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건 멈춰 있는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이었다.²⁶⁾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라이프코스의 구조와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 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형제복지원 수용은 분명 수용자들의 생애를 결정한 중요한 계기였다. 시설 수용은 이른바 정상적인 라이프코스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교육, 노동, 가족 제도로 뒷받침되는 역할 이행의 고리가 끊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제복지원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형제복지원 수용 이전에 이미 관계가 매우 허약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의 영향력을 시설 일반의 것으로 확장하는 것에도 주의를 요한다. 일부는

26) 한 심사위원이 제안했듯이, 동시대를 살아온 ‘일반인’들의 라이프코스과 비교하면 이들 라이프코스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구술자로 한정하면 대략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들이고, 형제복지원재단 자료(2010a, 532)에 따르면 1930년대 중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부터로 범위를 잡더라도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와 ‘386세대’, ‘신세대’를 아우른다. 이 중 ‘386세대’로 불리는 1961~1970년에 태어난 이들을 기준으로 주된 생애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의 경우 1980년의 중학교 취학률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각각 73.3%와 48.8%였고, 1985년의 중학교 취학률과 고등학교 취학률은 82.0%와 64.2%였다(<http://www.index.go.kr>). 즉, 10명에 7~8명은 중학교에, 10명 중 5~6명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교육 수준은, 구술에서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낮다. 결혼의 경우 남성이 10명에 9명 꼴로, 여성이 10명에 9.5명꼴로 결혼했다는 지표(2015년 기준 생애미혼율)(조선일보 2017/10/20)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경험과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간격이 더 크다. 물론 이 글에서 확인한 사례의 수가 적고, 사례 자체의 대표성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추정해볼 수는 있다.

고아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⁷⁾ 단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과 생애 구조의 관계가 형제복지원 전후의 생애를 단절적인 것으로 보는 도식화된 스토리보다는 복잡하다는 것이다.

4.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시간 의식

앞 장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라이프코스 구조를 관계망의 구조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수용자들 간 차이를 기술했지만, 차이보다 더 또렷한 공통점은 관계망의 허약성과 단속(斷續)성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자리 매기어는지를 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과 생애 전체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가와 관계없이 구술자 대부분은 그 경험을 현재 삶의 성격을 규정한 핵심 요인으로 회상했다.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이 바로 시설수용자 자신의 해석이다. 먼저 형제복지원에서의 시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살펴보고, 생애사의 맥락에서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상규명운동에 수용자들 스스로가 참여

27) 형제복지원 수용의 영향력, 나아가 시설 수용의 영향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한 심사위원의 제안처럼, 반증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이들과 비슷하게 어린 시절에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약했던 이들 중 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이의 라이프코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했음에도 학교-노동시장-가족으로의 이행에 성공한 이의 라이프코스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비교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한다.

1) 형제복지원에서의 시간

구술자 대다수에게 형제복지원에서의 시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멈추어 있었다. 첫째는 무제한성이다(Cohen and Taylor 1990, 178).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근대인의 라이프코스는 촘촘히 짜인 시간표대로, 단계별로 전개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취직한다. 전 단계를 제때 밟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특정 단계를 제때 밟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는 미래의 전망에 비추어 의미를 갖고, 실제로 그 의미가 구현되려면 미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 실현된 미래, 즉 현재에 비추어 과거가 사후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한 역할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서 단계적 시간표는 의미를 잃는다. 대다수는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입소했다.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전 단계를 밟아서 여기에 왔다는 의식이 없었다. 형제복지원은 그 어떤 후속 단계를 위한 곳도 아니었다. 형제복지원이 밝힌 설립 목적이나 원장 연설 등에서 ‘사회 복귀’가 명분으로 강조되었지만,²⁸⁾ 수용

28) 형제복지원이 밝힌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무의무탁으로 자활능력이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고아, 노인, 심신장애자, 결인, 구전, 강매, 노숙행위자 등을 수용 보호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 갱생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정신과 근로의욕 국가관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에게 1인 1기의 기술을 연마시켜 이들이 빠른 시기에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 대다수는 그곳 생활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퇴소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 안에서 꿈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면 뭐 해야지.) 꿈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언제 나갈지 모르고, 단지, 오늘날 편히 잠들 수 있으면, 오늘날 기합 안 받고 안 맞고 편히 잘 수 있으면, 아, 조금 더 자면 좋을 것 을.... (박순이 구술: OH_17_008_박순이_06)

그런 점에서 형제복지원 입소는 한 개인의 삶에서 시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앗아가 버렸다. 그래도 끝나는 시점이 있는 교도소가 더 낫겠다고 말하곤 했다는 구술(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8)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

두 번째 측면은 무차별성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는 의미(Cohen and Taylor 1990, 180)이기도 하고, 공적 시간과 사적 시간의 구별(Zerubavel 1979)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간표 밖의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시간이다. 현재만 있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단계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다. 따라서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된다. 그 결과 시간을 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제복지원재단 2010a, 507) 김희곤 씨의 구술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주례 확장이전 공사를 하는 기간에 박인근 원장이 원생들을 모아 놓고 종종 했던 연설에서 자주 언급했던 말이 이곳은 “꿈 꿀 수 있는 왕국”이라는 것이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57-58). 원장의 말과 시설수용자 인식의 괴리는 ‘꿈 꿀 수 없는’ 곳에서 ‘꿈’이 강조되는 형제복지원의 역설을 잘 드러낸다.

〈그림 1〉 형제복지원의 일과표(1980년대 중반)

일과표 현황

제공 : 본부사무실

순서	시 간	일 과	비 고
1	06:00	기 상	
2	06:10~06:20	아침예배	교회 및 소대
3	06:20~06:30	일조점호	
4	06:30~07:00	각 자합사업 부서반장 회	본부회의실
5	07:00~07:10	국기개양	
6	07:10~07:20	조기체조	운동장(전원참석)
7	07:20~07:30	간부회의(총무 부장 중대장 사무장)	본부 회의실
8	07:30~08:30	조 식	
9	08:30~11:30	오전일과	사회복지장 신원교육 외부기관 교회청년회장
10	11:30~13:00	중 식	
11	13:00~13:30	전송가 교육	전원참여
12	13:30~18:00	오후일과	
13	15:00~15:30	간 식	행, 풍국
14	17:00~	국기하기식	전원참여
15	17:00~18:00	석 식	
16	18:00~18:30	일석점호	
17	18:30~19:00	간부회의	소대장 부서반장
18	19:00~19:30	저녁예배	각 소대별
19	19:30~21:00	자유시간	T V 시청 독서 오락
20	21:00~	취 침	

※ 수, 일요일은 교회에서 합동예배(유년부 청소년부 성인)

※ 매주 토요일은 내무사할 실시

※ 매주 월요일은 전체회의(전 이용자 교회에서 운영보고)

※ 매일 06:20분은 자활부서장 일일업무 회의

18:00 각소대장 일일회의 및 상호 업무보고

출처: 형제복지원재단(2010a: 516)

시간의 무의미성을 수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시설은 〈그림 1〉과 같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짠 시간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수용자들의 활동을 통제한다. 그러나 시간표의 실질적인 목적은 질서 유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시간표의 각 칸은 매우 단순한 활동의 반복으로 채워진

다. 목적이 없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표는 매우 철저한 것이면 서도 매우 영성한 것이다. 그 시간표로 채울 수 없는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일상적인 폭력이다(곽귀병 2018).

이러한 상황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당장 오늘 안 맞고 좀 더 잘 수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생활했다는 여러 사람들의 구술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⁹⁾ 그렇지 않으면 미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탈출(시도)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 차례 시도 만에 탈출에 성공한 박경보 씨는 그 의미를 이렇게 묘사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도망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마음, 자유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교도소는 출소할 기약이라도 있지만 형제원은 그것마저도 없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가족을 찾아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박경보 구술: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6-27)

29) 이러한 상황 인식은 교도소 장기수감자(Cohen and Taylor 1990)나 장애인시설생활자(이지홍 외 2013)와 같은 이들의 구술에서도 공통되게 발견된다. 시간의 무화(無化)는 꼭 시설 구금이라는 물리적 결박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물리적 구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누구도 겪을 수 있다(리보우 2001, 62-65). 시간을 때우는 것이 큰 과제인 노숙인의 생활이 한 예다(이상직 2012).

그러나 탈출은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앞 장에서 썼듯이, 탈출해 형제복지원을 나온 이들은 31명 가운데 6명이다. 6명 가운데 4명이 형제복지원에 오기 전에 고아원에서 생활했다.

2) 생애의 시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집한 자료라는 맥락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들의 구술에서 형제복지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구술자들이 생애를 회고하는 방식과 자신의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형제복지원은 중심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복지원 경험의 규정력이 너무도 커서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다.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에 연결시키는 방식을 시간의식(time perspective)이라고 표현한다면(Coser and Coser 1990), 이들의 시간의식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때 형제복지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형제복지원 경험의 규정력을 강조하는 것이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66, 132;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22).

형제복지원에서의 시간은 수용자들에게 일차적으로는 물리적, 정신적 상흔을 남겼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120-121; OH_17_008_박순이_06).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생애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24, 34, 51;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37, 66).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무의미성이

다. 그것은 총체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박탈”(고프먼 2018, 29) 기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하면서 과거의 역할이 박탈되는데, 그것은 퇴소 이후에도 회복될 수 없는 단절을 낳는다.

역할 박탈이란 결국 관계망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1명 가운데 퇴소 후 정상적인 라이프코스를 뒷받침하는 교육-노동시장-결혼 제도를 차례로 밟은 이는 거의 없다. 교육 제도에 진입하기에는 때가 늦은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최하층의 제조업 일자리나 서비스업 일자리를 전전했다. 결혼한 이는 7명에 불과했고, 그 7명의 결혼 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시간이 쌓인다는 축적감이나 이전보다는 뭔가 나아졌다는 발전 감각을 느낄 수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다.

자살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주된 대응 방식 중 하나였다. 구술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자주 언급된다. 일례로 최승우 씨의 구술에는 “형제복지원 친구” 김영만이 나온다. 1989년도에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는 여인숙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 나중에는 형제복지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동생도 자살한다(OH_17_008_최승우_06). 박경보 씨의 구술에서도 평소 자신이 도와주었던 동생의 자살이 언급된다. 김희곤 씨의 구술에서도 자살한 이가 3명 나온다. 우리는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이들 중 자살을 선택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극단적인 방식이지만, 적어도 드문 선택지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외 2012)는 구술자들의 삶을 적절하게 요약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물리적,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삶이었던 것이 아닐까. 정근식(2013, 200-201)은 이러한 삶을 ‘가사’(假死)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소수자 일반의 삶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확장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소수자 연구를 개괄하는 글에서 생명과 죽음을 물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는 이를 가사자로, 물리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살아 있는 이를 열사자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사회와 같이 ‘생존’ 자체가 절박한 과제였던 과도기적 사회에서 소수자는 휴면 상태로 숨죽이고 있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봤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생애는 가사자의 삶에 가까웠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생애는 한국사회의 소수자들이 살아온 생애의 시간적 특징을 예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3) 진상규명운동의 시간

그렇다면 이들의 시간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일까?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상규명운동이 그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삶의 시간을 계속해서 붙잡는 한, 수용 경험자들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은 “잃어버린 세월”(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34;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37)을 해명하고 생애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진상규명운동이 수용자들에게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상규명운동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관계망 부재에 대한 해명과 그에 따른 보상 및 명예회복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관계망의 복원(또는 새로운 형성)이다.

시간의 부재는 곧 관계망의 부재를 뜻한다. 진상규명운동은 일차적으로 이 부재의 책임소재를 묻는 작업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삶 자체가 어디서 왔나”라는 홍두표 씨(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281)의 물음이나 “복지원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한종선(한종선 외 2012, 114)씨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진상규명운동은 삶의 기원을 찾고 삶의 경로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것이 해명되어야만 그때 이후의 시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과 배상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손정운 씨의 말은 이 점을 잘 요약한다. “제 유년기 청소년기 거기서 다 보냈어요. 저 솔직히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 밖에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밖에.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제가. 정부에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데 정부에서는 내 몰라라 하고 있지. 나 많은 거 안 바라요 진짜, 진상조사 위원회가 꾸려져서 진짜 제대로 된 조사를 해가지고 박인근 일가친척들 단죄하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 제대로 된 보상해주고, 우리가 없는 것 떼쓰는 거 아니잖아 지금요. 우리가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6년이나 있었던 그 안에서 고생한만큼 보상해 달라 이거예요. 어느 개인이 잘못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는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OH_17_008_손정운_06)

그러나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진상규명의 함의는 명예 회복이다. 사회로 나와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박순이 씨와 같이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오명’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와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백만 원을 보상해줄게’하면 얼른 받아가지. 나는 보상보단 사과가 먼저고, 이 수용번호를 없애 달라는 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주민번호가 아니라 수용번호가 있으면, 내가 그때도 국회 가서도(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부랑아 딱지를 떼줬으면 좋겠다.”(OH_17_008_박순이_06)

둘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다. 관계망의 복원, 또는 형성을 통해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때를 놓친 이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찾는 한 가지 방식은 이들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예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도 있다. 수용시설에서 나온 후 정착촌을 이루어 살아왔던 한센인이 이와 같은 사례다. 모여 있어 눈에 더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낙인 집단으로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들끼리의 관계망 속에서 나름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함께였기에 개인적인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수용자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들은 사회와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시간표에 편입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이하 ‘피해생존자모임’으로 약칭)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모이게 된 것 자체가 이들의 삶에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용 경험자들끼리의 관계를 외부와의 관계로 확장하고자 한 소망을 드러낸 구술도 상당히 있었다.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나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다. 요양원까지 운전해주는 봉사를 할 때에 존재감을 느낀다는 박경보 씨(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40)가 한 사례이다. 하안녕(박순이) 씨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소망했다(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99).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진짜 조그마한 주택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대어섯 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자신은 크게 피해 입은 것이 없다면 서도 굳이 증언을 하게 된 이유로 최태준 씨(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123)가 꼽은 것도 도움이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고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바람이 집합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피해생존자모임 수준에서의 연대활동이다. 2012년 한종선 씨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 이래 피해생존자모임은 학자, 활동가, 예술가,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 등과 관계를 맺어 왔다. 이 관계 맺기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넘어선 사회적 의제로 커 가고 있다(주윤정 2018, 210-217). 그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수용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실패한 경험 이, 과거사 규명이라는 지극히 사회적인, 그리고 성공할 경험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요약하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구술로 밝힌 바람과 그들이 근래에 보여준 활동의 핵심 의미는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적 역할 찾기다.³⁰⁾ 진상규명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애 시간에 질적(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제복지원 수용 경험은 비로소 “의미의 원천”(박 경숙 2004, 127)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또 하나의 근대적 라이프코스

이 글은 총체적 기관의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공간적 측면이 아닌 시간적 측면에서 풀어 본 것이다. 그 대상 사례로 1970~80년대에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이들의 전 생애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려 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애 자체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이면적 버전으로 해석해보려 했다. 이 글로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들의 생애는 옛날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라이프코스의 이중적 제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정상적인 라이프코스에 대한 상이 있고 사회 제도가 거기에 맞게 짜여 있는 한, 비정상적인 라이프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

30) 시작 때부터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한 한중선 씨에게 활동의 목표를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지금이라도 꿈을 찾는 것”,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그는 두 가지 버전으로 답했다. “우리가족이 온전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면담일: 2018.7.2.) 그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의 생애사로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점이다. 근대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리 잡았다.³¹⁾ 시설은 바로 이 후자의 삶이 머무르는 곳이자, 또 이 후자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단순히 독재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일면적인 접근일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러한 폭력이 가능했던 정치경제학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Ignatieff 1981; Matthews 2009).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시각은 갱생 시설로서의 부랑인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귀 시설로서의 오늘날 사회복지 시설이 갖는 근본적인 기능을 상기한다. 이 공간이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역할은 시설수용자들의 정상적인 라이프코스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명시적 목표와는 달리 시설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은 “일탈 행위가 야기하는 위험과 골칫거리로부터 공동체를 보호”(코프먼 2018, 402-403)하고 사회적인 “불편감을 관

31) 시차는 있지만, 식민지기에 한센인(김재형 2019)이나 해방 후에 부랑아(김아람 2011; 하급철 2017)가 사회적으로 관리되었던 맥락도 비슷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정상성/비정상성에 대한 상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등장한 시점을 식민지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980년대도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198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중산층이 자리를 잡은 시기였으며, 그와 함께 도시 하층민이나 부랑인이 더 눈에 띈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다. 절대 수는 줄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사회적으로는 더 불편한 존재로 드러났을 것이다. 더 눈에 띄었기에 이들을 비가시화 할 수 있는 시설 수용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직후 언론이 보인 놀라움은 이들의 비가시화에 따른 사회적 망각에서 깨어난 것에 대한 당혹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의 대응은 비가시화 노선 자체의 변형이 아니라 비가시화 노선의 인간화, 또는 제도화였다.

리”(이상직 2012, 335)하는 것에 가깝다. 즉, 사회 복귀 지원이라기보다 사회 격리에 가깝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방법을 가르친다는 시설에 들어간 것이 정상적인 생애 이력을 형성하는 경로와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종종 잇는다. “문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문제”(이지홍 외 2013)라는 탈시설 운동의 주장은 이 점을 환기한다. 무엇보다 이 글의 서두에 인용한 한종선, 박경보 씨의 말이 시설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둘째는 시설 수용이 시설수용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수용 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 수용은 수용자들의 관계망을 해체해버림으로써, 즉 사회적 위치를 소거함으로써, 그들의 생애 시간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 점에서 진상규명운동이 이들의 삶에 갖는 함의는 매우 크다. 이것은 설령 진상규명운동이 공식적으로는 원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실패’로 끝나더라도 유의미할 함의다. 이들의 삶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실패담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운동을 계기로 이들의 삶은 성공담이 될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이 어떤 시선으로도 평가되지 않는, 그저 살아온 이야기가 되는 변화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함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만 그려졌고, 그에 따라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멀쩡한 정상인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사실상 납치되어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는 식의 정형화된 플롯 내에서 해석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수집된 구술 자료의 성격도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틀

이 일정부분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규정이 시설수용자들의 경험을 ‘시설 내’ 피해로 한정하고, 그 피해 또한 등급화하는 효과(이소영 2014)를 낳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수용의 경험을 이들의 생애 전반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형제복지원은 더 문명화되면 사라질 야만적인 것도, 근대화 과정에서 격퇴해야 할 어떤 전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극단적인 시설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지나 교정, 치료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놀이터가 분화되지 않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한 채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근대화(문명화)가 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아니라 근대화(문명화)의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복지원은 예외적인 시설이 아니다. 총체적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잘 띄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이지홍 외 2013; 김원영 2018).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곳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감독관들, 명령자들, 교도관들, 수도원장들을 칭찬하거나 욕하는 데 덜 집중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총체적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구조적 열개에 집중하고 그를 통해 총체적 기관의 사회적 문제와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고프먼 2018, 153) 

참고문헌

- 강이수. 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강이수 편.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파주: 한울. 52-82.
- 고프먼, 어빙(Erving Goffman). 2009[1963].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 응』. 윤선길·정기현 옮김.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_____. 2018[1961]. 『수용소: 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에세이』. 심보선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 곽귀병. 2018. “총체적 기관의 폭력 기제와 사회적 고통의 생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5-69.
-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2014.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OH_14_003_박태길_06, OH_14_003_한종선_06, OH_14_003_허상천_06, OH_14_003_허정오_06, OH_14_003_홍두표_06, OH_14_003_황송환_06)
- _____. 2017.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II”(OH_17_008_김상수_06, OH_17_008_박순이_06, OH_17_008_손정운_06, OH_17_008_이채식_06, OH_17_008_최승우_06, OH_17_008_홍두표_06)
- 김아람. 2011.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329-365.
- 김영옥. 1988.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 서울: 청사.
- 김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서울: 현실문화.
- 김원영.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파주: 사계절.
- 김은희. 1993.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의 산업화와 신중산층의 가족 이념.” 『사회와역사』. 39. 81-120.

- 김일환. 2019.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가: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민주주의와인권』. 19(1). 39-87.
- 김재형. 2019. ““부랑나환자” 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민주주의와인권』. 19(1). 123-164.
-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서울: 창비.
- 뒤르켐, 에밀(Émile Durkheim). 2001. 『사회학적 방법론의 규칙들』. 윤병철·박창호 옮김. 서울: 새물결.
- 리보우, 엘리엇(Elliot Liebow). 2001[1967]. 『길모퉁이 남자들』. 엄신자·이준우 옮김. 서울: 인간과복지.
- 마일즈, 존(John Myles). 1992[1984]. 『복지국가의 노년: 공적 연금의 정치경제학』. 김혜순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38(4). 101-132.
- 소준철. 2018. “무감각한 자들의 보도와 갇힌 자들의 비참: 형제복지원 시설 내 직업보도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1-88.
- 아리에스, 필립(Philippe Ariès). 2003[1960/1973]. 『아동의 탄생』. 문지영 옮김. 서울: 새물결.
-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恵美子). 2004[1994/1997]. 『21세기 가족에게(2판)』. 고바야시 카즈미·김향남 옮김. 파주: 양서원.
- 유해정. 2018.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39. 387-436.
- 이상직. 2012. “불편 관리: 노숙인 시설 실무자와 입소자와의 관계.” 구인회·정근식·신명호 편.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7-337.
- 이성은·고은정. 2010. 『2010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소영. 2014.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2). 243-274.
- 이지홍·해정·강곤·김정아·이선옥·여준민·김유미·배경내·이영남·고병권. 2013.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탈시설! 문제 시설이 아닌 시설 문제를 말한다』. 서울: 도서출판 삶창.
- 전희경. 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 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 41-79.
- 정근식. 2013.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사회』. 100. 183-208.
- 정수남. 2018. “거리 위의 사회악 일소(一掃)와 억압권력의 역설: 1970년대 부랑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1(1). 285-316.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서울: 창비.
- 주윤정. 2018. “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해방과 기다림의 정치.” 『민주주의와인권』. 18(4). 185-224.
- 최종숙. 2019.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등장: 당사자운동주체 형성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담론 201』. 22(1). 81-119.
- 추지현. 2018.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17. 201-235.
- 하금철. 2017. “한국의 부랑인 강제수용: 빈곤의 범죄화와 사회안보의 적 만들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갑·이상직. 2017. “생애사 연구의 자료 기반 확장: 생애사 시간표를 활용한 구술 생애사 자료의 조직 및 분석.” 『조사연구』. 18(2). 99-136.
- 한중선·전규찬·박래균. 2012. 『살아남은 아이: 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서울: 문주.
- 햇토리, 타미오(服部民夫). 2006. “198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에 있어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김문조·햇토리 타미오 편. 『한국사회

와 일본사회의 변용: 시민·시민운동·환경』. 서울: 아연출판부. 11-42.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준)(약칭: 형제복지원대책위). 2013.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2013년 10월 10일, 가톨릭청년회관).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파주: 오월의봄.

형제복지원재단. 2010a. 『형제복지원운영자료집 1: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

_____. 2010b. 『형제복지원운영자료집 10』.

Anderson, Michael. 1985. "The Emergence of the Modern Life Cycle in Britain." *Social History*. 10(1). 69-87.

Becker, Howard S. 1991.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Buchmann, Marlis.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hen, Stanley and Laurie Taylor. 1990. "Time and the Long-term Prisoner." John Hassard (ed.). *The Sociology of Tim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78-187.

Coser, Lewis and Rose Coser. 1990. "Time Perspective and Social Structure." John Hassard (ed.). *The Sociology of Tim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91-202.

Ignatieff, Michael. 1981. "State, Civil Society, and Total Institutions: A Critique of Recent Social Histories of Punishment." *Crime and*

Justice 3. 153-192.

Kohli, Martin. 1986. "The World We Forgot: A Historical Review of the Life Course." Victor W. Marshall (ed.). *Later Life: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 Beverly Hills: Sage. 271-303.

Matthews, Roger. 2009. *Doing Time: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Imprisonment (Second edi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Smelser, Neil J. and Sydney Halpern. 1978. "The Historical Triangulation of Family, Economy, and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Supplement). S288-S315.

Zerubavel, Eviatar. 1979. "Private Time and Public Time: The Temporal Structure of Social Accessibility and Professional Commitments." *Social Forces*. 58. 38-58.

Abstract

Another Modern Life Course in Korea:

A Life Structure and Time Perspective of the 'Brothers Home' Inmates

Lee, Sang-Jic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The term “modern life course” brings to mind an image of people walking through lives comprised of distinct phases (e.g., education, work, marriage, childbirth, and retirement) which they enter one by one at the appropriate ages. The expectation that people will follow this life path is supported through a series of institutional systems including the family, schools, and the labor market. But then, what structure do the life courses of those who somehow diverged from or do not participate in this life path take? What are the institutional systems that support their life cour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sets out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examining the life histories of the inmates who were imprisoned in the “Brothers Home,” a workhouse that existed in the 1970-80s in Korea. Their lives are another archetype of the modern life course, characterized by a life structure devoid of phases and a time perspective marked by meaninglessness. The institutional system that regulated their life courses was the ‘rehabilitation facility,’ defined as *total institutions* by Erving Goffman. The inmates were neither dead nor alive, living in a state of apparent death, not only during their time at the facility but also after they were freed from captivity. The life courses of the Brothers Home inmates hold two implications. First, their life courses

were inevitable outcomes of the modernity which is generally seen in a positive light. In other words, their lives represent another modern life course, sharing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with the 'normal' modern life course. This perspective suggests that defining the Brothers Home tragedy solely as the doings of the violent dictatorship at the time omits the consideration that this facility and the lives of its inmates were an outcome of the 'dual inst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s' which is inheren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Second, the recent movement demanding the truth and indemnification of the Brother Home inmates may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former inmates to give (new) meaning to the period of their lives which had been filled with meaninglessness.

■ **Keywords:** Modern Life Course, Total Institution, Time Perspective, Life History, Workhouse

투고 : 2019/03/31 심사 : 2019/04/09 확정 : 2019/05/01